



“익혀 먹으면 안전, AI 걱정 마세요” 의사들 오리고기 시식회



[앵커멘트] 잘 익혀먹으면 닭고기, 오리고기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예전처럼 소비가 뚝 끊기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래도 찝찝하다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나섰습니다. 김성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

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.



[인터뷰: 한호철 / 경기 광명시] “지역도 점점 넓어지는 것 같고 소식을 접하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감은 있죠.”



[리포트]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수도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AI. 웬지 닭고기 오리고기 먹는 것이 꺼림칙하



[인터뷰: 이강현 / 한국오리협회 전문]

“AI 발생으로 인해서 오리 농가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또한 소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종고를

“익혀 먹으면 안전, 시 걱정 마세요”
의사들 오리고기 시식회

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”



[스탠딩: 김성규 기자] “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의사들이 나섰습니다.”



[현장음: 대한가정의학회 기자회견] “익혀드시면 안전합니다!”



대한가정의학회 소속 의사들이 한 식당에 모여 맛있게 오리고기를 먹습니다.

우리나라에 유행되는 오리고기와 닭고기는 AI 관리가 엄격한 데다, 설령 AI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도, 75도 이상으로 5분만 익히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

리기 위해서입니다.



[인터뷰: 인요한 / 대한가정의학회 사회봉사단장]

“대한민국에서 뭐가 안 좋다 하면 그걸 금방 기피하게 되는데 과학적인 근거로 오리고기 닭고기를 국민들이 피할 이유가 없고 안전하게 접수실 수 있다는 것을...”

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.



[인터뷰: 임순희 / 서울 수색동] “익혀 먹으면 안전하니 까 먹어도 되죠. 불안하지도 않죠.”

채널A 뉴스, 김성규입니다.